

직시어로서의 현대독어 명사화의 문제점

오 예 옥

1. 연구목적

Enç(1981)는 보통명사를 *ich*, *heute*, *hier* 등과 같이 직시어(*lexikalische Wörter*)로 간주한다. 즉 명사가 실제로 지시해 주는 대상이 동사의 시제 내지 발화시점에 상관없이 대화의 맥락(*Diskurskontext*)에서 주어지는 기간 내지 시간간격(*Intervall*)에 의해 결정되므로 화용론적으로 중의적(*pragmatisch mehrdeutig*)이라는 것이다. 즉 *ich*, *heute*, *hier* 등은 각각 발화자, 발화시점, 발화장소 등을 의미하나 이들이 실제로 지시하는 대상은 대화의 맥락에서 결정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명사화를 직시어로 간주하는 데에 따른 Enç(1981)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고 하겠다.

2. 가능세계의미론에 의한 명사화의 지시관계에 관한 문제점

우리는 대화상에서 임의의 개체에 대해 언급할 때 그 개체를 임의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발화시점에 이르기까지 혹은 화자의 기대치로서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의 시간적 배경(*temporaler Hintergrund*)내에서 관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시간적 배경을 앞으로 명사화의 화용론적인 중의성을 밝혀내는 데 사용할 관찰기간(*Betrachtintervall*)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러한 관찰기간을 통해 얻은 지식을 근거로 우리는 개개의 개체들을 한정표현(정관사(류)+명사)이나 부정표현(부정관사(류)+명사)으로, 또는 관사를 취하지 않는 명사만으로, 또는 고유명사 등의 언어형태로 표현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명사구와 개체간의 지시관계(*Referenzbeziehung*)를 종래의 가능세계의미론에서는 $\langle w, t \rangle$, 즉 임의의 가능세계와 가능시간, 예를 들면 현실세계와 발화시점 내지는 동사의 시제를 근거로 결정했다.

(1) *Der Schläfer schnarcht.*

(1)은 현실세계에서의 발화시점에서 주어인 *der Schläfer*가 지시하는 개체가 코를 고는 개체들의 집합의 한 원소가 되면 참이 된다. 즉 주어인 *der*

*Schläfer*에서의 명사화 *Schläfer*는 의미유형 $\langle e, t \rangle$ 로서 현실세계에서의 발화 시점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을 지시해 준다. 그러므로 (1)은 (1')와 같이 이해된다.

(1') *Derjenige, der zur Äußerungszeit schläft, schnarcht.*

그러나 예문 (2)에서 명사화 *Schläfer*는 (1)에서와 달리 문장의 시제나 발화시점과 상관없이 대화문맥에서 주어지는 과거의 어느 시기에서 잠을 잔 사람들의 집합을 지시한다.

(2) *Der Schläfer kommt gerade ins Wohnzimmer herein.*

그래서 (2)는 (2')로 이해된다.

(2') *Derjenige, der geschlafen hat, kommt gerade ins Wohnzimmer.*

예문 (3)에서의 명사화 *Paßverlierer*도 문장의 발화시점과 시제에 상관없이 과거의 어느 시기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들 혹은 미래의 어느 시기에 여권을 잃어버릴지도 모를 사람들의 집합을 지시한다.

(3) *Jeder Paßverlierer muß sich bei der Polizei melden.*

즉 (3)에서도 명사화 *Paßverlierer*의 의미는 문장의 시제나 발화시점과 상관없이 대화문맥에서 주어지는 임의의 시간간격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집합을 가리킨다. 그래서 (3)은 (3')로 이해될 수 있다.

(3') *Jeder, der Paß verloren hat oder verloren haben wird, muß sich bei der Polizei melden.*

지금까지의 설명은 명사화가 지시해 주는 지시물들을 가능세계의미론의 방법, 즉 $\langle w, t \rangle$ 로 설명해 주는 데 문제가 있음을 말해 준다. 특히 $\langle w, t \rangle$ 중에서 t 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3. Enç(1981)의 문제점

2절에서 제시된 가능세계의미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Enç(1981)는 $\langle w, t \rangle$ 의 t 대신에 대화문맥에서 결정되는 시기 T 를 제시하여 이에 의해 명사를 직시어로, 즉 화용론적으로 중의성을 갖는 표현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예문 (1), (2), (3)에서도 보았듯이 *Schläfer*, *Paßverlierer*와 같은 명사화도 직시어로 간주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명사화를 직시어로 보는 데에는 Enç(1981)의 견해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 예문 (4)를 보자.

(4) *Peter war einmal ein Raucher.*

(4)는 (5a, b)와 같이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독일사람들은 (4)를 실제로 (5b)의 의미로만 이해한다.

(5) a. *Peter war jemand, der einmal rauchte.*

b. *Peter war jemand, der einmal zu rauchen pflegte.*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독일어에서 *Raucher, Bergsteiger*와 같은 명사화가 부정관사 *ein*과 결합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임의의 행위를 습관적으로 자주 향하는 사람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6a, b)의 문장은 화자가 Peter를 몇 일간 혹은 몇 개월간 관찰한 결과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흡연가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등산을 하는 등산가로 간주하면서 발화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6) a. *Peter ist ein Raucher.*

b. *Peter ist ein Bergsteiger.*

문장 (7)의 주어인 *ein Raucher*와 *ein Bergsteiger*도 액센트를 주고 발음이 되어질 경우에 명사화 *Raucher, Bergsteiger*도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흡연가 그리고 습관적으로 등산을 하는 등산가의 집합을 각각 지시한다.

(7) a. *Ein Raucher war Peter.*

b. *Ein Bergsteiger war Peter.*

그러나 문제는 (8)에서와 같이 *gestern*과 같은 부사가 주어졌을 때 나타난다.

(8) a. ^{??} *Peter war gestern ein Raucher.*

b. ^{??} *Peter war gestern ein Bergsteiger.*

c. ^{??} *Ein Raucher war gestern Peter.*

d. ^{??} *Ein Bergsteiger war gestern Peter.*

(8a~d)에서의 *ein Bergsteiger, ein Raucher*는 문맥을 고려치 않을 경우 각각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자 그리고 습관적으로 등산을 하는 자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8)의 비문법성은 어제 하루라는 시간간격(Intervall)이 Peter의 흡연행위와 등산행위가 습관적으로 행해지는지의 여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기간으로 부적당하다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우선 어제 하루라는 기간은 Peter가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지 아닌지 또는 등산을 습관적으로 하는지 안하는지를 관찰하기에는 너무나도 불충분한 기간,

즉 관찰기간이 된다고 하겠으며, 또한 어제 하루라는 시간간격은 Peter의 흡연행위 및 등산행위가 습관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행위간격(Aktintervall)으로도 불충분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화자가 Peter를 임의의 어느 시기로 부터 발화시점까지 관찰한 결과 보통때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다가 오로지 어제만 담배를 몇 개피 피웠다고 해서 화자는 Peter를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흡연가로 볼 수 없다. 더우기 어제 하루라는 기간은 등산을 몇 차례 할 수 있는 행위간격도 될 수 없다(물론 여기서 등산의 행위는 예를 들면 관악산 정상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오는 산행을 말함). 그러므로 (8)을 화용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습관적으로 등산을 하는 자로 이해되는 명사화 *Raucher*와 *Bergsteiger*의 의미와 어제라는 관찰기간 내지 행위간격이 양립하지 않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8)의 문장에 *gestern* 대신에 예를 들면 *drei Jahre lang*과 같은 부사구가 나타난다면 자연스러운 독일어 문장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8') a. *Peter war drei Jahre lang ein Raucher.*

b. *Peter war drei Jahre lang ein Bergsteiger.*

부사나 부사구로 관찰기간 내지 행위간격이 주어질 때 나타나는 이와 같은 문제는 Enç(1981)의 대화문맥에서 주어지는 시간간격 T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명사화는 명사와 달리 어휘화 과정에서 갖게 되는 특수한 의미(Fleischer 1975: S. 13f 참조) 즉 '어떤 임의의 행위를 자주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의 의미 때문에 어떤 임의의 행위가 과연 습관적으로 행해지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관찰기간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임의의 행위가 습관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관찰기간 내에서 얼마나 자주 개별행위가 실제로 행해져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행위간격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때 관찰기간과 행위간격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좀더 자세히 토론토되어야 (8a~d)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겠다.¹

4. '습관적 행위'에 대한 화용론적인 정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체적인 대상은 시간, 다시 말해 시간적 배경

¹ 본 논문에서 필자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를 적시어로 간주하는 Enç(1981)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독일어의 명사화가 부정관사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Enç(1981)의 입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화용론적으로 정해지는 관찰기간과 행위간격을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물론 독일어의 명사화는 기저동사의 동작태와 깊은 관계가 있으나(이에 대해서 필자는 이미 '형태론적 언어능력의 조합성'이라는 제목으로 독일문학 41집에 이미 발표한 바 있음) 이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아니다.

(temporaler Hintergrund)속에 존재한다. 이러한 시간적 배경 속에서 대상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찰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앞에 제시된 문장 (6a)를 다시 보자 :

(6) a. *Peter ist ein Raucher.*

(6a)는 화자가 Peter를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흡연가라고 간주할 때 발화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화자가 Peter를 이미 어느 시점에서부터 관찰했었을 것이고, 관찰한 결과 Peter가 흡연습관이 있다는 지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때 화자는 Peter의 이러한 습관적인 행위가 발화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어느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을 수도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관찰기간은 예를 들면 1 주일 또는 1 개월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찰기간은 대화문맥에서 화용론적으로 결정되며 또한 동사가 표현해 주는 행위에 따라 관찰기간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9) a. *Ich habe eine Woche lang betrachtet, ob Peter zu rauchen pflegt oder nicht. → Peter ist ein Raucher.*

b. *Ich habe eine Woche lang betrachtet, ob der Angestellte bergzusteigen pflegt. → Der Angestellte ist ein Bergsteiger.*

c. *Ich habe eine Woche lang betrachtet, ob Peter in Konstanz nach Rom zu fahren pflegt. → Peter ist ein Romfahrer.*

(9b)가 발화되는 상황에서 *der Angestellte*가 지시해 주는 사람이 예를 들면 매일 출근해야 하는 모 회사 과장이라면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그가 습관적으로 등산을 하는 등산가로서 명사화 *Bergsteiger*로 부르기에는 너무나 충분치 못한 관찰기간이 될 것이며 (9c)가 발화되는 상황에서 콘스탄츠에 사는 Peter가 예를 들면 로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매해 휴가때마다 로마로 간다면 일주일이라는 기간 또한 Peter를 습관적으로 로마로 가는 *Romfahrer*로 부르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한 관찰기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누군가에게 등산을 하는 습관 내지 로마로 가는 습관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찰기간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언급했듯이 관찰기간은 화용론적으로 대화문맥에서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9b, c)와 달리 (9a)에서 일주일이라는 관찰기간은 Peter가 담배를 습관적으로 피우는 흡연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담배피우는 행위는 등산하는 행위나 로마로 가는 행위와는 달리 예를 들면 한시간 내에서도 자주 받

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습관적인 흡연행위를 관찰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 될 수 있으므로 (9a)에서 Peter는 명사화 *Raucher*로 불러 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의 습관 내지 속성을 관찰하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관찰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관찰기간은 화용론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² 그러므로 지금까지 설명한 관찰기간을 결정해주는 화용론적인 함수 F를 (10)과 같이 제시한다.

$$(10) F(V)=I$$

(10)에서 V는 임의동사 내지 동사구이며 F는 예를 들면 (11)과 같이 적용될 수 있다.

- (11) a. $F(\text{rauchen})=1\text{주}$
 b. $F(\text{bergsteigen})=3\text{개월}$
 c. $F(\text{nach Rom fahren})=2\text{년}$

(10)의 F에 의해 결정되는 I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어 현재의 발화시점을 거쳐 화자의 기대치에 따른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될 수도 있다. (11)에 제시된 예들은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관찰하는 데에는 1주 정도, 습관적으로 등산을 하는 행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 그리고 습관적으로 로마로 가는 행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물론 대화상황에 따라 (11)에 제시된 관찰기간들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10)에 의거 (9a, b, c)의 문장은 설명될 수 있다. 즉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습관적으로 담배피우는 행위와 달리 습관적으로 등산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로마로 가는 행위를 관찰하는 기간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9b, c)에서와 달리 (9'b, c)에서는 명사화 *Bergsteiger*와 *Romfahrer*가 파생될 수 있다. 왜냐하면 (9'b, c)에 제시된 3개월과 2년은 습관적인 등산행위와 자주 로마로 가는 행위를 관찰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9') b. *Ich habe drei Monate lang betrachtet, ob der Angestellte berg-*

² 본 논문에서 말하는 '관찰'이라는 것은 화자가 언급하려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임의의 개체를 의도적으로 관찰해야 하겠다 하여 하는 관찰행위라기 보다는 본 논문에서 필자가 제시하는 관찰기간 속에서 화자가 특정한 개체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찰하는 좀 더 광범위한 관찰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의 관찰행위를 통해 화자는 *Peter ist ein Raucher.*에서 Peter가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흡연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zusteigen pflegt.→Der Angestellte ist ein Bergsteiger.

(c) *Ich habe zwei Jahre lang betrachtet, ob Peter in Konstanz nach Rom zu fahren pflegt.→Peter ist ein Romfahrer.*

습관적인 행위를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또하나 중요한 문제는 (10)의 F에 의해 결정되는 관찰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개별행위가 실제로 얼마나 자주 행해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Carlson(1977: S. 274-75)은 어떤 행위를 습관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적어도 두 번은 그 행위를 실제로 이미 행했어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제안한다. 그러나 Carlson(1977)에게서의 문제는 이 두 번의 행위가 어느 정도의 시간간격을 두고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흡연가 즉 *Raucher*는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간격을 두고 예를 들면 하루에 두 개비, 혹은 한갑 정도의 흡연을 할 것이며, 어느 누군가가 습관적으로 등산을 하는 등산가 즉 *Bergsteiger*로 칭해질때 그는 등산을 하는 행위를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혹은 한달에 두 번 정도 행할 것이다. 로마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매해의 휴가때마다 로마로 갈 경우 우리는 그를 *Romfahrer*로 칭할 수 있다. 즉 우리는 누군가가 임의의 동사가 표현해 주는 개별행위를 임의의 기간내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간격을 두고 되풀이 행할 때 그가 어떠한 행위를 습관적으로 행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2) a. *Peter hat gestern einmal zu rauchen gepflegt.*

b. *?Peter hat gestern einmal bergzusteigen gepflegt.*

(12a)는 두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하나는 Peter가 어제 이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다가 어제는 한 때 담배를 몇 개비 피우곤 했다는 것으로 그리고 또다른 의미는 Peter가 보통때는 담배를 하루에 한 개비 정도 피우나 어제는 담배 몇 개비를 피우곤 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12b)는 (12a)와 같이 두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없다. 왜냐하면 담배를 여러번 자주 피우는 행위는 어제라는 시간간격 내에서 일어날 수 있으나, 등산을 여러번 자주 하는 행위(여기서 등산을 하는 행위는 이미 언급했듯이 산정상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정상적인 등산행위를 말함)은 어제라는 시간간격 내에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어떤 임의의 행위가 습관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은 (10)에 의해 결정된 관찰기간 내에서 그 행위에 알맞게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각각의 개별행위가 실제로 자주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개개의 개별행위가 실제로 자주 되풀이 행해질 수 있는 행위간격(Aktintervall) 역시 관찰기간과 같이

화용론적으로 정해진다고 보므로 이에 대한 화용론적인 함수 K를 (13)과 같이 제시한다.

$$(13) \quad \frac{F(V)}{[K(V)]} = I$$

(13)의 K는 (10)의 F에 의해 결정되는 관찰기간 I를 대화상황에 맞게 실제의 개별행위가 행해지는 행위기간으로 나누어 주는 화용론적인 함수이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14) \quad \begin{array}{l} \text{a. } \frac{F(\text{rauchen})}{[K(\text{rauchen})]} = 1\text{일} \\ \text{b. } \frac{F(\text{Kaffee trinken})}{[K(\text{Kaffee trinken})]} = 1\text{일} \\ \text{c. } \frac{F(\text{bergsteigen})}{[K(\text{bergsteigen})]} = 1\text{달} \\ \text{d. } \frac{F(\text{nach Rom fahren})}{[K(\text{nach Rom fahren})]} = 1\text{년} \end{array}$$

(14a, b, c, d)는 (10)의 F에 의해 결정되는 관찰기간 내에서 각각 담배 피우는 행위와 커피 마시는 행위는 하루에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서 행해지며, 등산하는 행위는 한달에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행해지며, 로마로 가는 행위는 일년에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행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대화상황에 따라 F와 K에 의해 결정되는 관찰시기와 행위간격이 동일한 간격이 될 수도 있으며, 개개의 개별행위가 행해지는 행위간격도 화용론적으로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13)에 의거 (12b)가 화용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보면 이는 어제 하루라는 시간간격이 등산하는 행위가 습관적으로 자주 행해질 수 있는 행위간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화용론적인 함수 F와 K를 갖고 (6a)의 문장을 다시 설명해보자.

(6) a. *Peter ist ein Raucher.*

(6a)의 문장을 화자는 (10)의 F가 결정해 주는 관찰기간 내에서, 예를 들면 일주일동안 Peter를 관찰한 결과 (13)의 K에 의해 정해지는 행위간격, 예를 들면 매일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지식을 토대로 해서 발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Peter는 K가 정해준 하루라는 행위간격에서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담배피우는 개개의 행위를 실제로 여러번 행했을 것이다. 여기서 가정해야 할 것은 어떤 행위를 습관적으로 행하기 위해 실제로 행해져야 하는 구체적인 개별행위(instantielle Tatigkeit)

를 더 이상 분해하지 않고 하나의 행위로 보는 것이다. 즉 담배 한 개비 피우는 행위나 사과 한 개 먹는 행위, 커피 한 잔 마시는 행위 등은 사실상 여러가지의 서로 다른 하위행위가 증첩된(gequantelt) 하나의 상위행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담배 한 개비 피우는 행위는 우선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성냥을 켜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흡입하고 연기를 내뿜고, 또 흡입하고 연기를 내뿜고 담배 한 개비를 완전히 피울 때 까지 흡입하고 내뿜는 행위는 반복된다. 커피 한 잔 마시는 행위도 우선 주전자에 물을 붓고서 물이 끓는 동안 커피잔에 커피가루, 프림, 설탕을 넣고 물이 끓으면 끓인 물을 커피잔에 붓고 작은 수저로 저은 후에 한모금씩 마시고 커피잔이 다 비워질 때까지 한모금씩 마시는 행위는 반복된다. 그 이외의 다른 행위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13)의 K에 의해 정해지는 행위간격 I에서 행해지는 실제의 구체적인 개별행위는 여러가지 세부행위로 분해하지 않는다는 (15)와 같은 가정이 제시된다.

$$(15) \forall x \forall I [[V_{ins}(x)] \xrightarrow{I} \exists I' \subset I [V_{ins}(x)]^{I'} \& \sim \exists I'' \subset I' [V_{ins}(x)]^{I''}]$$

(15)에서 V_{ins} 는 임의의 동사나 동사구가 표현해 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행하는 실제의 개별행위를 말한다. 즉 (15)는 어떤 임의의 동사나 동사구가 표현해 주는 행위를 임의의 x 가 실제로 (13)의 K가 결정해 주는 행위간격 I에서 행할 경우 x 는 그 행위를 I에 속하는 임의의 실행간격 I' (여기서 실행간격이라 함은 행위간격에 속하는 하위시간간격으로서 실제로 개개의 개별행위가 행해지는 시간간격임)에서 행하고 동시에 I' 에 속하는 I'' 에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15)는 이미 언급했듯이 담배 피우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사과 한 개 먹고, 로마로 가는 등의 행위가 실제로 행해질 때 담배 한 개비를 완전히 피워버리는 행위로, 커피 한 잔을 완전히 마셔버리는 행위로, 사과 한 개를 완전히 먹어버리는 행위로, 로마에 갔다 오는 행위로 본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15)에 의거 (16)와 같은 문장들의 모순은 설명된다고 하겠다.

- (16) a. **Einmal einen Apfel essen ist viermal (oder fünfmal usw.) einen Apfel essen.*
- b. **Einmal eine Zigarette rauchen ist fünfmal (oder sechsmal usw.) eine Zigarette rauchen.*

그러면 (10), (13), (15)에 의거 ‘습관적 행위’는 (17)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7) \forall x \forall t_0 [[V_{hab}(x)] \leftrightarrow \exists I \forall I \in I [V_{ins}(x)]]$$

(17)에서 V_{hab} 은 임의의 동사나 동사구가 표현해 주는 행위를 습관적으로 자주 행하는 습관적인 행위를 말하며 t_0 은 임의의 시점, 예를 들면 문장의 발화시점 내지 시제를 말한다.³ 즉 (17)은 임의의 x 가 임의의 시점 t_0 에서 어떤 행위를 습관적으로 자주 행한다는 것은 (10), (13)의 F 와 K 에 의해 정해지는 관찰기간 I 와 행위간격 I 에서 모두 개별행위가 실제로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제의 개별행위가 모든 I 에서 얼마나 자주 행해져야 하는 것은 행위자와 그리고 동사와 동사구가 나타내주는 행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물론 (17)은 정상적인 습관적인 행위의 경우를 말하므로 습관적으로 행해오던 어떤 임의의 행위가 불의의 이유로 더 이상 행해질 수 없는 경우는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명사화를 직시어로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Enç(1981)$ 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8a~d)의 문제점을 (10), (13)의 화용론적인 함수 F 와 K , 그리고 이에 따라 정의한 (17)의 습관적인 행위에 의해 설명해 본다.

5. 관찰기간과 행위간격에 의한 $Enç(1981)$ 의 문제점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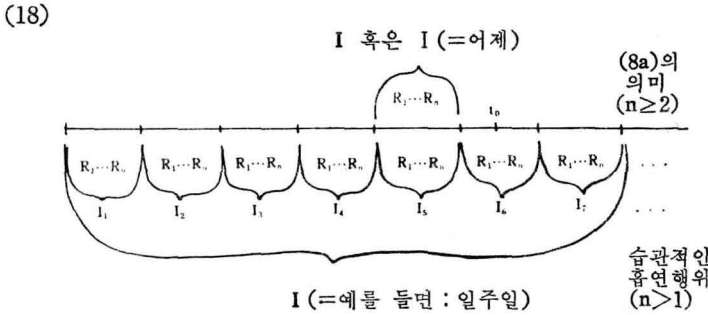
(8a~d)의 문장을 다시 한번 제시한다.

- (8) a. ?? *Peter war gestern ein Raucher.*
- b. ?? *Peter war gestern ein Bergsteiger.*
- c. ?? *Ein Raucher war gestern Peter.*
- d. ?? *Ein Bergsteiger war gestern Peter.*

*Peter*가 예를 들어 임의의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담배를 습관적으로 피우는 흡연가일 경우 그는 (10), (13)의 F , K 에 의해 정해진 임의의 관찰기간 I 내의 모든 행위간격 I 에서 실제로 담배피우는 개별행위를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행해 왔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담배 피우는 개개의 개별행위는 (15)에 의거 담배 한 개비를 완전히 피우는 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8a)를 화용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화자가 *Peter*를 어제 하루 관찰한 결과 그를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흡연가 즉 *Raucher*로 간주할 수

³ 발화시점과 문장의 시제는 물론 다르다. 다만 (17)에서의 t_0 은 문장의 발화시점으로 보아도 되고 문장의 시제로 보아도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t_0 가 과거의 어느 시점일 경우 습관적인 행위는 t_0 보다 훨씬 이전에 행해졌을 것이다.

없기 때문이고 또한 화자가 어느 시점에서 부터 Peter를 관찰한 결과 Peter가 어제 이전의 시점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않고 또한 어제 이후의 시점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다만 어제 하루 동안만 담배를 몇 개비 피웠다고 해서 Peter를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흡연가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어제라는 시기는 (10)의 F에 의해 정해지는 관찰기간으로도 그리고 (13)의 K에 의해 결정되는 행위간격으로도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8b~d)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8a~d)를 화용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어제라는 시기는 Peter가 담배피우고 그리고 등산하는 행위를 습관적으로 행하는가의 여부를 관찰하는 관찰기간으로도 또는 행위간격으로도 충분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8a)의 문제점을 (18)과 같은 도표로 그려볼 수 있다.



(18)에서의 $R_1 \dots R_n$ 은 담배 한개비 피우는 개별행위들을 말한다. (18)의 도표에서 나타내 주듯이 습관적인 흡연행위는 도표 하단처럼 흡연행위가 행해져야 하나 (8a)의 의미는 도표 상단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러므로 (8a)의 문장은 화용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8b~d)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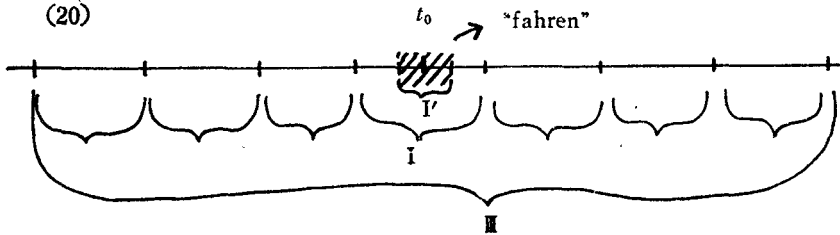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명사화가 습관적인 행위를 하는 자로 이해될 때 명사화는 (10)의 F가 결정해 주는 관찰기간과 (13)의 K가 정해주는 행위간격에서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실제로 개개의 개별행위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집합을 지시해 준다.

다음은 명사화가 지시해 주는 지시물들이 발화시점과 실행간격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경우를 보자.

(19) "Mami, guck mal schnell den Fahrer, wie gefährlich er die Spur wechselt!"

(19)에서의 *der Fahrer*는 발화시점에서 운전하는 자, 즉 'derjenige,

der gerade zur Äußerungszeit fährt'를 지시한다. 그러므로 (19)의 명사화 *Raucher*의 의미는 (20)과 같이 도표로 나타내 줄 수 있다.



(20)에서는 차를 모는 구체적인 행위가 (13)의 K에 의해 정해지는 행위 간격 I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의 실행기간 I'내에서 실제로 행해지는데 바로 이 실행간격 I'(빗금친 부분)에 발화시점 t_0 가 들어 있다.⁴ 지금까지의 명사화에 대한 설명에 의거 언뜻보기에 모순문장같이 보이는 (21)의 문장이 '정보를 주는(informativ)' 정상적인 독일어 문장임이 판명된다.

(21) *Dieser Raucher ist kein Raucher.*

(21)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는 정상적인 문장이다.

- (22) a.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 ist keiner, der jetzt gerade raucht.
 b.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e, ist keiner, der jetzt gerade raucht.
 c.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och habituell raucht, ist keiner, der jetzt gerade raucht.
 d.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och habituell raucht und auch bis zu einem zukünftigen Zeitpunkt habituell rauchen wird, ist keiner, der jetzt gerade raucht.
 e.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e,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
 f.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och habituell raucht,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
 g.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och habituell raucht und auch bis zu einem zukünftigen Zeitpunkt

⁴ (19)에서 명사화 *Raucher*는 행위간격에 포함되어 있는 실행간격 속에 발화시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19)의 *der Raucher*가 지시해 주는 사람이 실제로 직업적인 운전수이든 대학교수이든 여기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habituell rauchen wird,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

- h.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e.
- i.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och habituell raucht.
- j.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och habituell raucht und auch bis zu einem zukünftigen Zeitpunkt habituell raucht.
- k. Derjenige, der jetzt gerade raucht,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
- l. Derjenige, der jetzt gerade raucht,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e.
- m. Derjenige, der jetzt gerade raucht,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och habituell raucht.
- n. Derjenige, der jetzt gerade raucht,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och habituell raucht und auch bis zu einem zukünftigen Zeitpunkt rauchen wird.

문장 (21)는 대화상황에 따라 (22a~n) 등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동일성(Identität)을 나타내 주는 동사 *sein* 때문에 (21)의 문장이 모순같이 여겨질 수 있는 경우는 (23)와 같이 이해되는 경우이다.

- (23) a.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
- b.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e,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e.
- c.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och habituell raucht,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e und heute noch habituell raucht.
- d.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och habituell raucht und auch bis zu einem zukünftigen Zeitpunkt rauchen wird,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och habituell raucht und auch bis zu einem zukünftigen Zeitpunkt rauchen wird.
- e. *Derjenige, der jetzt gerade raucht, ist keiner, der jetzt gerade raucht.

문장 (21)가 (23a~e)로 이해될 수 없는 이유는 $a \neq \sim a$ 의 모순을 때문이라 하겠다. (21)의 문장이 대화의 상황에 따라 (22a~n)의 문장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21)의 명사화 *Raucher*가 화용론적으로 중의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화용론적인 중의성은 (10)의 F에 의해 그리고 (13)의 K에 의해 정해지는 관찰기간 및 행위간격 내에서 실제로 담배 피우는 행위를 행하는 자들의 집합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개체들을 임의의 시점에서부터 현재의 발화시점을 거쳐 때로는 화자의 기대치로서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의 시간적 배경(temporaler Hintergrund) 속에서 관찰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관찰기간 내에서 개체가 임의의 속성을 갖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얼마나 자주 행하고 있는가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명사화가 화용론적으로 중의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10), (13)에서와 같이 화용론적으로 결정되는 관찰기간과 행위간격을 설정하므로써 Enc(1981)에서 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오예옥(1986) '현대독일어명사화의 의미해석,' 언어 11, 156-75.
- Äquist, L./Guenther, F. (1978) 'Fundamentals of a theory of verbaspect and events within the setting of an improved tense-logic,' in F. Guenther and C. Rohrer, eds., *Studies in formal semantics*,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Amsterdam, London, 167-199.
- Bäuerle, R. (1979) *Temporale Deixis, temporale Frage: zum propositionalen Gehalt deklarativer und interrogativer Sätze*, Narr, Tübingen.
- Bäuerle, R. and Stechow, A.v. (1979) 'Finite and nonfinite temporal constructions in German,' in C. Rohrer, ed. (1980) *Time, tense and quantifications*, Niemeyer, Tübingen, 375-421.
- Carlson, G.N. (1977) *Reference to kinds in Englis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vailable from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Dowty, D.R.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The semantics of verbs and times in generative semantics and in Montague's PTQ*, Reidel, Dordrecht.
- Enc, M. (1981) *Tense without scope: An analysis of nouns as indexical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Fleischer, W. (1975) *Wortbildung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Niemeyer, Tübingen.
- Grewendorf, G., Hamm, F. and Sternefeld, W. (1987) *Sprachliches Wissen: Eine Einführung in moderne Theorien der grammatischen Beschreibung*, Suhrkamp, Frankfurt.
- Oh, Ye-Ok (1985) *Wortsyntax und Semantik der Nominalisierungen im Gegenwartsdeutsch*, Ph.D. dissertation, Konstanz: Hartung-Gorre.
- Oh, Ye-Ok (1988) Erzeugungen und semantische Interpretationen der Nominalisierungen im Gegenwartsdeutsch, *Linguistische Berichte* 114, 163-174.
- Stechow, A.v. (1982) *Structured Propositions*, Konstanz: papers of SFB in Konstanz.

ABSTRACT

Issues in Nominalization as Indexical Words in Modern German

Oh, Ye-Ok

Enç(1981) took the position of treating common nouns as indexical words along with *ich*, *heute*, *hier*. The present paper attempted to show the problems in Enç's(1981) solution which includes such nominalizations as *Raucher*, *Bergsteiger*, *Kaffeetrinker* in the category of indexical words in modern German. An alternative solution with an incorporation of pragmatic concepts of 'observation interval' and 'act interval' was presented in the present paper.

301-764

충남 대전시 중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